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는 선교편지



할렐루야!

Apa kabar? (아빠 까바르)

주의 사명에 따라 기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소명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가족이야기

소명교회의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한파로 인해 매서운 강추위가 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두들 건강하시죠?

지금 이곳은 우기로 매일 비가 내렸다 해가 떴다를 반복합니다. 사춘기로 인해 힘들어하던 막내아들 한별이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저희 부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문화 차이로 인해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서로 웃으며 살며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들을 더욱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지교회초청 성탄예배



사역1. 언어교육



현재 저희는 반둥 임락언어 학교에서 9단계 과정중 3단계수업을 마쳤습니다. 단계를 올라갈 때 마다 시험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현지교회에 초청을 받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야 수다 므니까”(나는 결혼 했습니다)해야 되는데 그만 "사야 수다 므닝갈" (나는 죽었습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피씩 웃음이나옵니다.

올해 9월에는 반둥 시내에 있는 UP대학에서 BIPA언어 과정(1년)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과 8월에 만료되는 비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락언어학교 12월 종강예배 (언어훈련을 받는 선교사들과 자녀들)

사역2. 이웃과 친구관계 맺기



이웃을 사귀었습니다. 매일 새벽3시면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는 무슬림 이웃입니다. 첫째 딸 Salma는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 합니다. K-POP이 좋아 노래와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합니다. 가끔 집에 초대해 떡볶기와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Hari aynto라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과 기독교를 포함한 6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배운 것은 서로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역3. 현지교회와 연합사역



GBIPPL.BANDUNG교회 Goestianto 목사님 작년 11월에 저희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짜안주르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날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과 함께 재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현지교회와의 협력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피해현장 복구의 1차, 2차, 3차, 사역을 시작으로 현재 반동지역 선교사들이 각 교단과 개 교회의 사역을 연합하여 활동하는 피해복구 팀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집짓기와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교회와 연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합 및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숙제를 위해 깜풍(현지 시골마을)에 매일 다니면서 만난 Asev이라는 38살 동생입니다. 첫 만남부터 왠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임을 믿고 기도하며 계속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교회에 같이 가겠냐고 말을 전했는데 너무도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도 이혼하여 한명의 딸아子和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엔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언어공부에 지치지 않고 잘 배울 수 있도록
2. 믿음의 동역자 만남과 좋은 관계가 이어지도록
- 3 UP대학의 등록과 비자문제 및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4. 막내아들 한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5.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과 두 명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6. 항상 믿음충만 성령충만 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